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금감원 FY2009 모기지보험 판매 감소

□ 금감원은 서민들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해 2007년 12월부터 판매한 모기지보험의 FY2009 판매동향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모기지보험 신계약건수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함.

- FY2009 모기지보험 신계약건수는 4,215건으로 전년대비 56.7% 감소했고 월별 판매 실적도 지난해 4월 808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3월 276건으로 하락함.
-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지원이라는 모기지보험의 도입취지가 반영되면서 2억원 이하 대출건수가 3,103건으로 73.6%를 차지함.
- 평균 담보가액은 국민주택규모(85㎡) 이하 제한폐지와 투기지역 지정완화 등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32.2% 상승한 1억6천만원을 기록함.
- FY2009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평균 주택담보대출비율(LTV)은 75.4%로 미가입시의 한도인 60% 보다 평균 15.4%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.
- 모기지보험 대출연체비율은 2010년 3월말 1.1%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연체비율 0.36% 보다 높은 수준이나 전체 손해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연체율 2.21% 보다 낮은 수준임.

□ 금감원은 모기지보험 실적 감소의 원인을 분석·평가하고 향후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모기지보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임.

- 모기지보험 판매실적 감소는 부동산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 감소,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한 관련 수요 감소, 금융회사의 부동산가격 하락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됨.
  - 향후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모기지보험 계약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
- 금감원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부담 감소, 대출금 관련 리스크 전가 등 모기지보험의 유용성이 높음을 감안하여 향후 계약실적 추이를 점검함과 동시에 잠재 부실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임.

(모기지보험(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) 시장 동향,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서비스국, 6/8)